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6면)

비 새는 지붕 아래 외로운 구민 이제 송파구가 우산이 되어 드립니다



송파구의회 박지효 의원

거여1동, 가락2동, 문정1동

본 의원은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정동 주민들로부터 옥상 방수와 노후 승강기 수리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송파구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8,886건에 달하지만, 관련 지원 조례가 없어 주민들이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옥상 방수와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반면 서울 중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를 단지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안전과 삶의 질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겠습니다.